

경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사료비 68.6% 절대 비중, 생산비 절감을 담배·홍삼처럼 녹용수매, 가격폭락 막아야

-농촌진흥청, 충남·전북지역 사슴사육농가 조사결과-

□ 사슴사육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1. 조사농가의 경영개황

조사는 2000년 2/21~3/11에 걸쳐 충남, 전북지역의 양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부부노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주 평균 연령은 52.4세로 종사경력은 1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또한 양육경영에 대한 종사비율은 95.0%로 대부분이 전업농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농가들은 초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자가소유 밭에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후작으로 옥수수, 호박, 연맥을 재배하여 엔실레지 또는 청초

급여를 하고 있으며, 부족한 조사료는 중국산 또는 북한산 갈잎을 수입하여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품종은 레드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없었고 꽃사슴 사육전문, 또는 엘크 사육전문, 3품종을 혼합하여 사육하는 등 품종선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규모를 보면 꽃사슴의 경우 호당 평균 27두로 자육 9두, 성육 22두이며 엘크의 경우는 호당 평균 40두로 자육 9두, 성육 33두로 나타났으며 전체농가들의 자육 평균두수는 13두, 성육 평균두수는 48두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사육두수 12.4두 보다 5배정도 더 큰 사육규모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농가의 경영개황

구 분		평 균	구 분		평 균
농 동 력	• 종사자수	2.0인	사 육 규 모	• 꽃사슴	27
	- 자가	2.0인		- 자육	9
	- 고용	0.0인		- 성육	22
	• 경영주연령	52.4세		• 엘크	40
경 지 면 적	• 종사경력	11.7년	사 양 기 술	- 자육	9
	• 종사비율	95.0%		- 성육	33
	• 논 경지면적	2,540평		• 암록종부월령	16
	• 밭 경지면적	2,750평		• 암록이용년수	12
				• 수록종부월령	43
				• 수록이용년수	7
				• 폐사율	13

조사농가들의 사육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암록의 경우 평균적으로 16개월령이 되어서 번식종부에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12년을 목표 내용연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슴의 경우는 평균 43개월령 약 3~4년생의 수사슴을 종부사슴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7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육농가들은 특히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록 구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정보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폐사율은 약 13%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농가들의 일반적인 사육기술은 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인 사양기술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사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1) 녹용생산을 위한 사육비

사슴사육비는 경영비가 전체 평균 94.5 만 원으로 여기에 자가소유의 생산 3요소에 대한 기회비용을 더한 생산비는 149.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사슴품종에 따라 녹용생산량은 물론 사료섭취량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꽃사슴과 엘크사슴 전업농가도 사례분석하여 표시하였다<표 2>.

<표 2> 사슴사육비

(단위 : 만원)

비 목	전체평균	꽃사슴전문	엘크전문
사 료 비	64.8	48.1	101.2
- 농후사료	44.5	24.6	61.2
- 조사료	20.3	23.5	40.0
진료 위생비	2.2	0.9	2.9
수도 광열비	0.9	1.4	0.4
소농구비	0.4	0.6	0.3
임 차 료	8.0	0	17.6
차입금이자	9.8	11.4	11.0
수 리 비	0.8	-	-
감가상각비	6.0	3.1	5.3
가타잡비	1.6	1.4	2.6
경 영 비	94.5	66.9	141.3
고정자본이자	4.8	2.5	3.3
유동자본이자	2.8	3.2	4.8
토지자본이자	2.2	3.5	-
자가노력비	45.1	14.6	17.0
생 산 비	149.4	90.7	166.4

주) 조사농가들의 평균폐사율 13%를 적용한 비용임

경영비 가운데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4.8만원(68.6%)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후사료비와 조사료비

가 각각 44.5만원, 20.3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섭취비율이 아닌 투입비용에서의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은 68.7:31.3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차입금이자로 9.8만원(10.4%), 임차료 8.0만원(8.4%), 감가상각비 6.0만원(6.3%)순이었다.

꽃사슴과 엘크 전문경영도 경영비 중에 차지하는 비목들의 비중이 평균에서 비교한 것과의 비슷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엘크의 경우 꽃사슴에 비해 2.1배 높은 사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록경영 농가들의 경우 모든 농가들이 자가사료포에서 조사료를 재배하여 엔실레지 등으로 일부를 자급하고 있을 뿐 100% 자급하는 농가는 없었으며 부족한 조사료를 중국산 아니면, 북한산 수입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슴은 본래 다른 축종에 비해 질병에 강하고 발정기에만 특별히 주의하여 사양관리하면 커다란 사고위험이 수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3대 축종인 소, 돼지, 닭과는 달리 특별한 사육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양록농가들의 사양기술은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절각기술은 과거에는 몇몇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두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효능이 좋은 마취제 및 회복제가 보급되어 조사농가 모두가 스스로 녹용 절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사슴은 사료종류에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추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조사료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축종 사육농가들과 마찬가지로 사료 자급화를 위한 자금 융자 및 보조 등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소득 및 순수익

양록농가의 주수입원은 녹용과 녹혈이다. 녹용생산량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품종에 따라 다르며 같은 품종이라도 연령에 따라 많

<표 3> 양록경영의 소득 및 순수익

(단위 : 만원)

항 목	녹용생산량 (냥)	조수입(A)	경영비(B)	생산비(C)	소득 (A-B)	소득 (A-C)
평 균	131	131만	94.5	149.4	36.5	-18.4
꽃사슴	20	30만	66.9	90.7	-36.9	-60.7
엘 크	293	293만	141.3	166.4	151.7	126.6

은 차이가 발생한다. 꽃사슴의 녹용생산량은 0.5~1kg, 레드디어가 2.5~3.5kg, 엘크 10~12kg이다. 한편 주수입원이었던 녹혈은 과거에는 전국 공통으로 200cc당 5~10만원에 판매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녹용구매자와 같은 단골손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녹혈의 판매수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로 꽃사슴의 경우 녹혈량은 350cc, 엘크는 5000cc정도가 생산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 및 순수익을 계산한 것이 <표 3>이다.

계산의 전제조건은 먼저 품종에 관계없이 전체 평균 녹용생산량은 4.9kg, 꽃사슴은 0.75kg, 엘크 11kg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축종과 마찬가지로 사슴도 같은 품종, 같은 연령이라도 유전능력에 따라 녹용의 생산량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녹용의 판매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도매가격이 1냥당(37.5g) 7,000~8,000원, 소매가격의 경우는 농가간 차이는 있지만 꽃사슴의 경우 15,000원, 엘크의 경우는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적용하고 녹혈판매 수입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전체평균의 소득 및 순수익은 각각 36.5만원, 18.4만원이며 꽃사슴은 -36.9만원, -60.7만원, 엘크는 151.7만원, 12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생산된 생녹용을 전량 판매하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녹용의 20% 정도는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녹용의 유통형태는 다양하여 현재 생녹용은 축산물로 판매되지만 건녹용은 한약품으로 판매되는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약

방에서 축산물인 생녹용을 구입하여 한약재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수입 건녹용의 범람을 초

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양록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판매처 확보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은 다른 축종에 비해 상당히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3. 양록농가의 의식조사 결과

양록농가들은 사양기술, 가격에 관한 정보는 신문, 잡지는 물론 전문서적, 협회나 조합의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고 있다. 또한 사슴사육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은 판매처 확보이며, 그 다음으로 녹용과 사슴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불안정을 들고 있다.

녹용판매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상인을 통한 도매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대규모농가는 소매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도매거래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소매 판매의 경우 부정기적이어서 목돈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도매상에게 대량판매하여 일시에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양록농가들은 대량 소비처인 한약방 등에서 국산녹용 보다는 값싼 수입녹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녹용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사슴거래가격은 엘크의 경우 자록 수사슴이 200만원 암사슴이 50만원이며 꽃사슴의 경우는 성록 수사슴 60만원, 암사슴 40만원이다. 그러나 사슴사육농가들이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하는 사슴가격은 엘크 수사슴의 경우 150~250만원, 암사슴 100~200만원이며 꽃사슴의 경우 수록 50~100만원, 암록 40~70만원

으로 응답하였다. 엘크 암사슴의 경우 농가들은 완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거의 손익분기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바꾸어 말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거격추이가 계속된다고 해도 사슴사육을 포기하겠다는 농가는 없으며, 현재의 규모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슴사육을 포기할 경우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아직은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당분간 사슴가격 추이를 지켜보고 3~4년내에 계속사육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대부분인 것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후의 사슴가격과 녹용가격추이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수지 불안정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 사슴사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1년에 완전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양록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온 배경에는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뉴질랜드를 비롯한 녹용수출국들이 「절편녹용」 수입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양록경영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절편녹용 수입이 허가된다면 녹용가격의 급락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닥쳐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다소나마 탈출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최대의 난제는 수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생산비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절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농가가 월동용 조사료를 거의 중국, 북한에서 수입한 갈짚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모작이 가능한 논면적은 760~885천ha이며 약 400천ha 정도만을 담리작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하였을 때 8,400억원정도의 수입사료 대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반추동물인 소 사육농가들과 경합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담리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농가들의 의향에서 나타났듯이 판매처 확보가 어려워 자가생산량의 20%정도가 재고로 남는 현실을 감안하여 담배, 홍삼과 같이 여름철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녹용수매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고녹용을 비롯하여 폐복 또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처리용자 등의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양록업계는 품질향상을 위한 품종개량 보다는 외국에서 능력이 우수한 사슴을 수입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수입사슴의 경우 평균적인 거래가격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거래된 후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량거래 사례도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자체적으로 사슴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유전형질 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품질이 좋은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전적인 형질발굴도 중요하지만 체계화된 사양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 40%, 사양관리를 포함한 경영환경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양관리중에도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사료급여이므로 계절별, 품종별, 성별, 연령별, 성장단계별로 사슴의 기호사료개발과 성분과약을 통한 급여표준이 확립되어 양육경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개발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가의 주수입원은 녹용이

다. 그러나 사슴은 가죽, 녹육, 녹혈 등 부산물이 많이 생산되므로 이를 이용한 상품 개발을 통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슴고기전문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슴고기의 다양한 요리형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농가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올해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합시다.

동봉된 지로용지 이용, 편리한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1년이상 회비 미납자 부득이 회보 발송 중단

한국양육협회는 양육인의 권익대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사슴사육 농민의 권익보호와 양육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IMF관리체제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 양육인의 요구와 주장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사슴사육 농가의 대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양육인이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회원으로 회비를 납하는 것입니다.

회비는 부업규모 5만원, 전업규모 10만원이며 동봉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계좌(우체국 014118-01-000376 한국양육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지로용지와 함께 올해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사무처에 문의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양육협회**

대표전화:(02)969-6600, FAX:(02)969-7115